“보건진료소장 마지막 1기생 가운을 벗다”

청춘과 열정 다해 후회 없이 일해 … 가족 같은 주민들께 감사

그때 그 시절,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하던 막바지 12월쯤 친구로부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모집 공고가 실린 한 장의 신문을 넘겨받았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오지에 간호사를 교육시켜 배치한 것은 정말 대단한 제도였고 결단이었다.

대학 졸업 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았고, 1981년 9월 전국 최연소 보건진료소장 1기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면출장소 한귀퉁이 창고를 개조해 보건진료소 문을 열고 셋방살이를 시작했다.

꿋꿋하게 매일 새벽 6시면 마을 꼭대기에 자리잡은 면출장소에 올라가서 소리 반 잡음 반인 마이크로 “후~후~ 보건진료소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로 주민들의 아침을 깨웠다. 보건진료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곳인지 홍보했다. 마치 심 훈의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채영신이 된 것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이후 지대가 높고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장통 술집을 개조한 공간으로 보건진료소를 옮기게 됐다. 논바닥에 대충 판 우물에서는 실지렁이가 뒤엉켜 올라오곤 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 어린 내게는 힘든 일이었다.

난산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어린 생명, 농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고 오토바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해진 주민 등 감당하기 벅찬 순간순간을 겪어냈다.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의존해 병을 악화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

24시간 대기 근무를 했는데, 언제 보건진료소 문을 두드릴지 몰라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초창기 보건진료소장들 중에는 연탄가스 중독이나 오토바이 사고로 희생된 분들도 있다.

내가 선택한 보건진료소장의 길은 결코 탄탄한 아스팔트길도 아름다운 꽃길도 아니었지만,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다 보니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얼마 전 딸과 함께 7년여 동안 근무했던 강원도 바닷가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했다. 두 번이나 강산이 변한 세월만큼이나 참으로 많이 변했고, 마을은 정겨운 골목과 슬레이트 집에서 복잡한 길과 빌딩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20년 전에 잠시 머물렀던 나를 알아봐주셨다. “소장님, 그땐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안 오셨어요?”라며 손을 잡아 끌어안아주신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최선을 다했던 30대의 내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 시절 나는 청춘과 열정을 주민들을 위해 바쳤다. 평상복보다 더 내 옷 같은 가운을 걸치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솟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가 솟아났고 용기백배했다.

이제 나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가운을 정리하며 나의 삶 속 굽이굽이에 함께 했던 수많은 고마웠던 분들이 생각난다. 함께 고생하고 위로하며 같은 길을 갔던 많은 선배님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기획하고 교육시키고 파견한 보건행정가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딸보다 더 어린 보건진료소장을 믿고 따르고 사랑과 정성으로 감싸주신 부모형제 같은 주민들, 스승 같은 주민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가운을 정리할 수 있게 됐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건진료소장 마지막 1기생으로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선배님들 특히 1기생 동료 선배님들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신문 지면을 통해 전한다.

오늘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이 선배들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수고로움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누리게 되길 바라며, 보건진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보건진료소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김영희(충북 음성군 봉현보건진료소장)

충북간호사회 회원역량강화 워크숍

충북간호사회(회장 박미숙)는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로 ‘회원역량강화 워크숍’을 6월 1일 전북 변산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10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지며 화합하는 시간을 보내고, 충북간호사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박미숙 회장은 “평소 충북간호사회 사업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친교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서울시간호사회, 보건의료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6월 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간호사회 홍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박인숙 회장은 “서울시간호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활동, 간호사들의 역할과 이미지를 올바르게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언론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며 힐링 체험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간호와 인권’ 주제 서울간호학술대회 등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경북간호사회, 시간호사회 간담회 개최

경북간호사회(회장 윤난숙)는 분회 조직인 9개 시간호사회와의 간담회를 5월 30일 개최했다.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영주시, 상주시간호사회 회장과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이 간호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올해 간호사회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간담회에서는 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간호사회 운영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하반기에 시간호사회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대상으로 간호사회 운영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남자간호사회 첫 지회 창립 … 경남 최정훈 회장 선출

대한남자간호사회(회장 손인석)는 ‘경남남자간호사회 창립총회’를 6월 2일 개최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가 2013년 정식 출범한 이후 첫 지회 창립이다.

경남 초대회장에는 최정훈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교육수간호사가, 부회장에는 하재현 마산대 간호학과장이 선출됐다.

최정훈 회장은 “임상현장에서 남자간호사의 입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자간호사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 남자간호사와 남자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남자간호사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혜진 기자 hjjoo@

경기도간호사회 분야별 간담회 개최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간호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대학(부, 과)장들과 5월 25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실습교육 운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5월 31일 만났으며, 임원들은 초중고 학생진로교육 특강을 맡아줄 간호사 인력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자 회장이 경기도간호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보건진료소장회 간담회를 6월 30일, 경기도보건간호사회 간담회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남 양산시간호사회 초청강연회 개최

경남간호사회 산하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는 2018년 초청강연회를 ‘중국의료와 세계화’ 주제로 5월 31일 개최했다.

회원들의 역량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회원 72명이 참석했다. 남덕현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오늘날 중국의 사회상황, 한중교류 분위기, 중국의 의료현황과 시장, 한국방문 중국 요우커 등에 대해 강연했다.

장우연 회장은 “회원들이 최근 의료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강연회 강의료는 경남간호사회에서 지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부산시간호사회 ‘간호문학 – 사진 – UCC’ 시상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제21회 간호문학·간호사진 및 제5회 간호UCC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간호문학 △최우수작= ‘김수빈’(수필, 심가람·인제대 부산백병원) △우수작= ‘오월의 병실’(시, 김호선·메리놀병원) ‘코드블루는 파랗지 않다’(시, 허준호·부산광역시의료원) △가작= ‘어지럼’(시, 김경옥·동의의료원) ‘마음안경점’(시, 배주언·인제대 부산백병원) ‘나가사키 피폭자의료국제협력회 초청연수를 다녀오며’(수기, 서국순·부산보훈병원)

◇간호사진 △최우수작= ‘우리는 중환자실 재활중’(김영희·부산대병원) △우수작= ‘힘의 원천은 밥! 나는 103세’(백정옥·김원묵기념봉생병원) ‘소아병동 아기천사’(차진화·부산광역시의료원) △가작= ‘쓱싹쓱싹 함께하는 미술시간’(김소연·부산성모병원) ‘우리 같이 해봐요 할 수 있어요’(신지원·부산부민병원) ‘어깨 빌려 드릴께요’(박선영·김원묵기념봉생병원)

◇간호UCC △최우수작= ‘남자간호사 응급실 적응기’(유현백·부산대병원) △우수작= ‘41병동 환자확인’(차진화·부산광역시의료원) ‘동래봉생병원 혈액투석실의 안전(화재)’(윤선희·동래봉생병원) △가작= ‘우리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황언혜·부산성모병원) ‘손씻기는 사랑입니다’(김정환·인제대 부산백병원) ‘패션으로 완성하는 감염관리(하드캐리)’(정미열·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정규숙 기자 kschung@

한국기초간호학회 ‘임상유전과 간호’ 학술대회

한국기초간호학회(회장 정재심)는 ‘쉽게 접근하는 임상유전과 간호’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6월 9일 개최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유전이야기’ ‘유전정보 맞춤형 암 진단과 치료의 이해’ ‘유전간호의 실제’ ‘유전간호의 윤리 및 법적 접근’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학회 일반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송민경 경희대 박사과정생을 선정했다. 회원들의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됐으며, 우수 논문포스터 5편을 시상했다.

최명애 초대 한국기초간호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재심 회장은 “인간 유전자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소개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간호학에서 유전학의 기초부터 맞춤형 간호까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가천대 간호대학 학술제에 베트남 간호대학생 초청

가천대 간호대학(학장 조경숙)은 가천간호학술제를 5월 25일 열고 베트남 후에대 간호대학생 7명을 초청했다.

가천대 간호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해 베트남 후에대의 간호교육 역량강화를 비롯해 응급의료교육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후에대 간호대학생들을 초청했다.

후에대 간호대학생들이 연구주제를 발표했으며, 우수 발표자를 시상했다. 후에대와 가천대 간호대학생들은 서로 교류하며 우정을 쌓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 벤처기업 인증기업 /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좋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